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의 매개효과 -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전소연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의 매개효과 -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전 소 연

인 준 서

전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수치심이 매개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395부 중 322부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부모화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 Youth: FRS-Y), 수치심 척도(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PFQ-2), 대인관계 문제 척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KIIP-SC)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화경험은 수치심,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졌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 수치심이 완전매개 하는 모형이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화 경험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수치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경험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겪는 부모화로 인한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이들의 수치심을 다뤄주는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화 경험, 대인관계, 수치심,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화
 - 1) 부모화의 정의 5
 - 2) 부모화의 유형 5
 - 3) 부모화의 원인 7
- 2. 부모화 경험, 수치심과 대인관계
 - 1)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8
 - 2) 부모화 경험과 수치심 11
 - 3) 수치심과 대인관계 12

III. 연구 문제

- 1. 연구문제 14
- 2. 연구모형 15

IV.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16
- 2. 측정도구 17
 - 1) 부모화 척도 17

2) 수치심 척도	18
3) 대인관계문제 척도	18
3. 통계처리 및 분석	20

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21
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2

VI. 논의

.....	29
-------	----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차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표2> 부모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8
<표3>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19
<표4> 부모화 경험, 수치심, 대인관계문제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21
<표5> 측정모델 적합도	23
<표6> 측정모델 요인 부하량	23
<표7> 수치심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과의 비교	27
<표8> 경쟁모형에서 각 변인간의 관계	27
<표9> 경쟁모형에서 경로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28

그림 목차

<그림1> 연구모형	15
<그림2> 경쟁모형	15
<그림3> 수치심을 매개로 한 측정모델 검증	22
<그림3> 수치심의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25
<그림4> 수치심의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관계 경험의 질적 측면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사회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찍이 Bowlby(1973)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 및 타인에 대한 배려 행동의 이면에 나타나는 병리적인 위험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킨 자녀를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라 하며(Boszormenyi-Nagy & Spark, 1973),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도되어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상태를 부모화(Parentification)라 한다(조은영, 2004a).

그러나 강박적으로 부모를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이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과 가족학자들은 그동안 이들이 실제 내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박적 배려심은 단기적으로는 가족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하고(Byng-Hall, 2002),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상을 보이

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고(Byng-Hall, 2002), 초기 애착 및 경계선 혼란(Chase, 1999)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랑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자기애적 성격을 보이는 부모화된 자녀들은 주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 온 자녀들로서, 자신의 재능 및 중요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진정한 감정이입이 어려워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불공평함을 호소하며(Jurkovic et al., 2001),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핌으로써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지 그러한 배려를 받는 입장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Bowlby, 1973) 상호보완성이 깨지므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성공 지향적이며,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거절을 못하고 배려만 하는 강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조은영(2004a)은 이러한 부모화된 자녀들을 위한 정신건강 차원의 심리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모화된 자녀들의 일방적 배려심은 개인 내적으로나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찍부터 유능하게 보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우 적응적이므로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Minuchin, 1974),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간과되어져 왔다. 이는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갖추는 것을 자식의 중요한 성품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와도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화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모화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적으며 부모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부모화 경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즉, 부모가

알콜 중독이거나 AIDS에 걸린 가족 또는 이혼가족, 학대가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화에 대한 연구(Carroll, & Robinson, 2000; Chase, Deming, & Wells, 1998; Locke, & Newcomb, 2004; Riedel, & Rotheram-Borus, 1999; Stein,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부모화된 자녀들의 성격특성이나 부모화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Byng-Hall, 2002; Castro, Jones, & Mirsalimi, 2004; Davies, 2002; Jurkovic, Jessee, & Goglia, 1991; Mayseless, Bartholomew, Henderson, & Trinke, 2004; West, & Keller, 1991; Wells, & Jones, 1996, 1998, 2000)들이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다.

부모화는 대인관계에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초래한다.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문비(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은 특히 대인관계 문제 중 과배려성, 비사교성, 지배성/성마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관계 속에서 일단 배려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때 불공평감을 느끼게 된다(조은영, 2004a). 또한 상호호혜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불공평한 느낌을 경험하는 부모화된 자녀들에게는 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끊임없이 타인을 통제하려 하며, 경쟁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Robinson(2000)). 그런데 이렇게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부모화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어떠한 심리내적 과정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이르게 되는지 그 발생과정과 경로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발생과정에서 매개변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가능한 매개변인 중 하나로 수치심의 매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가족 역기능과 수치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Tangney, 1992; 김은영, 2008), 부모화 경험은 부모의 요구, 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거짓자기를 발달

시킨다고 설명하였다(Cleary, 1992). 또한 부모화 경험이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혔다(Wells와 Jones, 2000). 국내에서는 신주연(200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매개로한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부모화가 수치심 경향성을 취약하게 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학대경험과 관련한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정숙, 김은경(2007)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이 높은 수치심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 이론적 배경

1. 부모화

1) 부모화의 정의

부모화는 어린 시기부터 부모의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식 간의 역할전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부모화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용, 이해 및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Boszomenyi-Nagy & Spark, 1973). 또한 부모화는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부모가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 아이를 과대평가하고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에 자녀에게 부모화가 생길 수 있다(Jurkovic, Jess, & Goglia, 1991). 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픈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수용 하기도 한다(Bowlby, 1980).

부모화된 자녀는 정서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유년기적 발달단계에 필요한 요구와 행동을 억압하면서 물리적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을 책임짐으로써, 그들의 애착 대상이 되기 쉽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부모역할, 친구역할, 배우자역할, 동반자역할이 장기간 내면화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Chase, 1999; Jurkovic, 1997; Brock & Barnard, 1998).

2) 부모화의 유형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역할 수행의 성격에 따라서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관계윤리적 불공평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물리적 부모화는 가족이

도구적으로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적 작업에 대한 책무를 떠맡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서적, 행동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돌보거나, 시장보기, 요리하기, 병든 가족 간호하기, 돈 벌어오기 등이 있다. 정서적 부모화는 아동이 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들을 보호하고, 절친한 친구, 동료,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갈등을 중재하고, 지지와 양육, 위안 주기 등이 있다. 관계윤리적 불공정성은 가족 내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각자의 능력과 자원, 부담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관계와 신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족내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화 유형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언제나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부모화라고 해서 심리적, 표현적 구성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 부모화 역시 물리적 기능만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보살핌의 외현적인 행동발현이다. 정서적인 보살핌 활동들도 역시 물리적인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Jurkovic, 1997). 파괴적 부모화는 발달단계에서 부적절하며 과도하게 외형적으로 표현적, 도구적 책무를 떠안고 있으며, 관계윤리적으로 불공평한 상태를 말한다. 상황적응적 부모화란 보살핌 행동이 외형적으로 볼 때 표현적, 도구적이고 과도한 상황에 있지만, 적응적인 부모화 아동들은 대체로 보살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들이 지는 책임도 상당부분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당시에만 부가되는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장시간 책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모화의 역할을 내면화하지는 않는다. 비부모화는 부모화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부모가 지나칠 정도로 아동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때 아동자신은 할 일이 없게 된 상태의 유아화까지 포함한다(Jurkovic, 1997).

이러한 역할에 따른 구분과는 다르게 부모화를 돌봄의 지속성, 정도, 책임의 연속선상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 상황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하기도 한다. 파괴적 이 유형의 부모화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모화는 파괴적 부모화이다(Jurkovic, 1997).

Jurkovic, Thirkeild 와 Morrel (2001)은 부모화를 적응적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로 구분했는데, 파괴적인 부모화는 보살핌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여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 즉,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지 그러한 배려를 받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Bowlby, 1973).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Jurkovic, 1997; Jurkovic, et al., 2001),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Chase, 1999).

파괴적 부모화는 알코올 가정 뿐 아니라 빈곤가정, 일중독이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재결합가정, 이혼이나 별거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가정,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가정, 아동학대나 무시를 하는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파괴적 부모화 과정은 어린 나이에 아동들이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는 과정에서 우울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내면화되면서 진행된다(Jurkovic, 1997).

본 연구에서 부모화는 파괴적 부모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맥락적 가족치료 이론에서 파괴적인 부모화는 가족들 사이의 윤리적인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부모화 중에서도 정서적, 행동적으로 어린 자녀가 부모나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나이가 맞지 않은 부모역할, 배우자역할, 친구역할, 동반자역할을 장기간 하게 될 때 파괴적 부모화가 발생된다.

3) 부모화의 원인

부모화의 발생요인은 개인 심리적인 요인, 가정 환경적인 요인, 사회 역사적인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Jurkovic, 1997).

첫째, 개인 심리내적 요인은 개인의 기질이다. 극도로 민감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동은 가족들의 필요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 아동들은 부모

의 강한 요구에 자신들의 관심거리와 이슈들이 무시 받는다. 이처럼 자녀의 요구는 무시되고 부모는 자녀의 의존심과 충성심을 착취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측면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부모화 현상이 발생한다(Session & Wayne, 1986).

둘째, 부모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대부분 가정환경에 있다. 아동들의 관계 윤리적 불균형은 이들이 처해있는 보다 큰 사회, 문화적인 맥락속에서 연관을 갖는데, 우선 가정 안에서 보면 윤리적인 불균형이 부모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여 자녀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게 됨으로써 부모화가 발생한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화 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일을 자녀가 달성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의 대상인 자녀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수용, 이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족의 기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하여 부모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대를 지나갈수록 더 심해진다(Goldenberg, 2000; 김용태, 2001).

2. 부모화 경험, 수치심과 대인관계

1)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부모화된 자녀처럼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지 그러한 배려를 받는 입장에 있지 못한다(Bowlby, 1973). 타인을 보살피는 마음은 확실히 적응적이지만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에 몰두할 때, 상호보완성이 깨짐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Chase, 1999).

한편, 부모화된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의 대인관계 패턴을 살펴본 조은영(2004a)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고집단에서는 신뢰감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많은 두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소외감에서도 부모화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심리내적으로 충돌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거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간섭을 하거나, 신체적인 억압을 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한다(Session & Wayne, 1986). 가정과 사회에서 남달리 강한 책임감을 갖는 이들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이 자연스럽게 지 않다(Wells & Jones, 2000). 그리고 더욱 심각한 영향은 자율성 및 개성이 상실된다는 데 있다(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away, 1992).

특히 자기애적 성격을 보이는 부모화된 자녀들은 주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해온 자녀들로서, 자신의 재능 및 중요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나 진정한 감정이 입이 어려워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인다. 그 밖에도 낮은 수준의 대학 적응력(Berman & Sperling, 1991; Chase, Deming & Wells, 1998; Held & Bellows, 1983)과 대인관계의 어려움(Betchen, 1996; Olson & Gariti, 1993; West & Keller, 1991)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화된 자녀들을 A유형의 성격관점에서 본 연구에 의하면 (Robinson, 2000), 부모화된 자녀들은 강박적인 성취자이며 끊임없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피곤을 억제하는 사람들로서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서두르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는다(Mattews & Angulo, 1980)고 연구된 바, 이러한 성향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하고(Byng-Hall, 2002),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그리고 정신적 분열(Splitting)을 보이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고

(Byng-Hall, 2002), 초기 애착 및 경계선 혼란(Chase, 1999)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서(Caule & Woolger, 1989),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여를 보이며(Campbell, Adams & Dobson, 1984;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낮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력(Berman & Sperling, 1991)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불안해서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거나 몰입해야 함으로써 실존적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urkovic, et al., 1991).

부모화된 자녀들은 형제나 가까운 사람을 간섭하고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등 성인처럼 행동을 한다. 가정에서는 정서적·육체적으로 약해진 부모를 보호하거나 위기에 빠진 부모에 대한 정신적인 개입, 형제경쟁, 근친상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등 정서적, 행동적으로 부적응현상을 보인다(김유숙, 2002).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남달리 강한 책임감을 갖는 이들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이 자연스럽지 않고,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Wells & Jones, 2000).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있어서 부모화로 인한 정서, 행동의 특징은 피학증과 자아도취, 인지적인 정신이상, 정체성 혼란, 낮은 자존감, 방어적인 분열, 수치심, 우울, 비행, 충동성, 분노와 오만, 지나친 순종, 어른스러운 태도, 기대이상의 높은 성적이거나 기대이하의 낮은 성적, 완벽주의, 사회적 고립, 또래 문제에 지나친 관여, 신체화증상, 피로, 열중, 만성적인 걱정, 약물남용, 기타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Jurkovic, 1997).

이러한 자녀들의 부모화는 정상적인 자아발달을 하지 못하여 성인이 된 후의 부적응 현상으로 거짓자아, 방어적 태도,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가까운 사람들과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 성인의 부적응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가족 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 부모화 경험과 수치심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때 실패의 결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다(Lewis, 1992). 즉,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이런 점에서 그것은 부정적 정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Tangney, 1995)이고, 사회적 정서(Shott, 1979; Scheff, 1988)이며, 자의식 정서(Crozier, 1998)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대 등 가족 내 역기능적인 역동과 수치심과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Crittenden & Dilalla, 1988; Kempe et al., 1962), Lader(1998)는 수치심이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Boszormeny-Nagy 등의 연구(1973)에 의하면 수치심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 의해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기대를 하면, 그러한 상황을 내면화시킨 아동은 자신의 온전한 욕구나 의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가성숙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부모화 경험을 촉발시킨다(Boszormeny-Nagy & Spark, 1973). 수치심은 가족 내 학대 경험에 의해 생겨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적절한 거울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일어난다(Andrews, 1995, Gilbert & McGuire, 1998). 그럴 때 자녀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수치감을 발달시키게 되고, 고통스러운 감정인 수치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거짓자기를 형성하여 그 안에 숨는다. 이러한 거짓자기를 자신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 내적으로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로서 지지를 받고자 하는데(Glickauf-Jugh & Wells, 1997), 자녀들이 이러한 역동에 휘말리게 되면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부모 역할을 통해 수치감을 방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성화된 부모화는 수치감 증상과 관계가 있다(Cleary, 1992).

많은 연구가들은 여러 가지 가족 역기능과 수치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어린 시절의 부모화 경험은 부모의 요구, 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거짓 자기(false-self)를 발달시키고, 참된 자기(true-self)는 힘과 고유함(specialness)이 결여된 것으로 경험되어 수치심을 형성시킨다고 설명한다(Cleary, 1992). Wells와 Jones(2000)는 부모화 경험이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혔으나, 부모화 경험을 단일 차원으로 다룸으로써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 대상으로 수치심을 매개로한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신주연(2003)연구에서 정서적 부모화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불공정성이,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정숙, 김은경(2007)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이 수치심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3) 수치심과 대인관계

수치심은 대인맥락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험으로서, 수치심과 대인행동, 즉 공격적 반응, 비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과 같은 대인행동 사이에 상관성이 있으며(Lopez et al., 1997), 공감과는 부적적으로 상관성이 있고, 대인갈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부적응적 책략을 사용하는 것과 정적으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한 협력 기술과 갈등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ngney et al., 1996).

Tangney 등(1989, 1991, 1992)은 수치심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수치심은 자기-중심적인 손상된 감정이입, 비난을 외현화하는 경향, 충동적인 분노와 적대감을 자주 느끼는 것과 연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에서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서 타인을 비합리적으로 비난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그러한 타인들로부터 철수하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반응하게 된다고 하였다(Lewis, 1971; Scheff, 1987).

Buss(1979)는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회피 경향이 전형적으로 수줍음의 내적경험을 동반한다고 설명하였다(Levin, 1971; Lewis, 1971; Mayman, 1974). 따라서 수치심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인관계에 작용할 때 대인관계 상에서 중요한 공감적 기회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받게되는 낮은 사회적 지지와 반응들이 대인관계에 악순환 유지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Ⅲ.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화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부모화경험, 수치심,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은 수치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청소년의 부모화경험과 대인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1> 청소년의 부모화경험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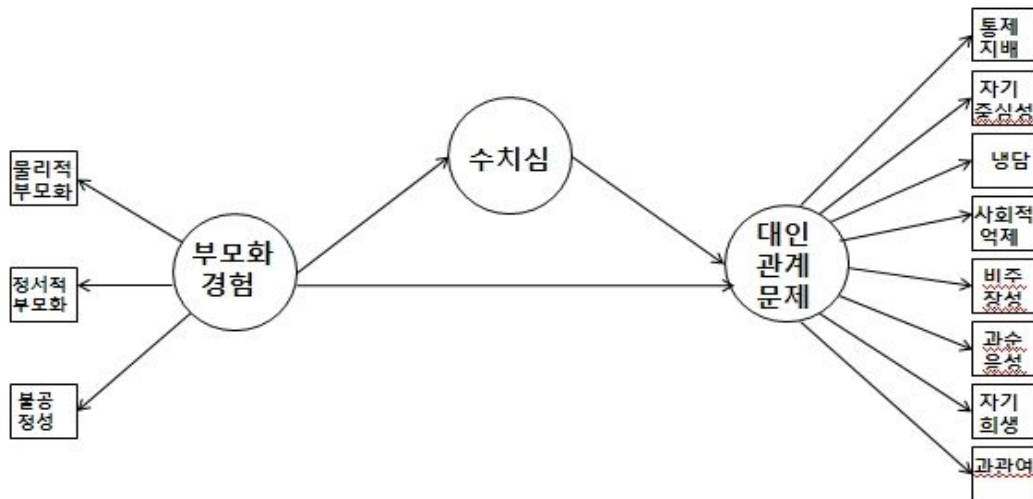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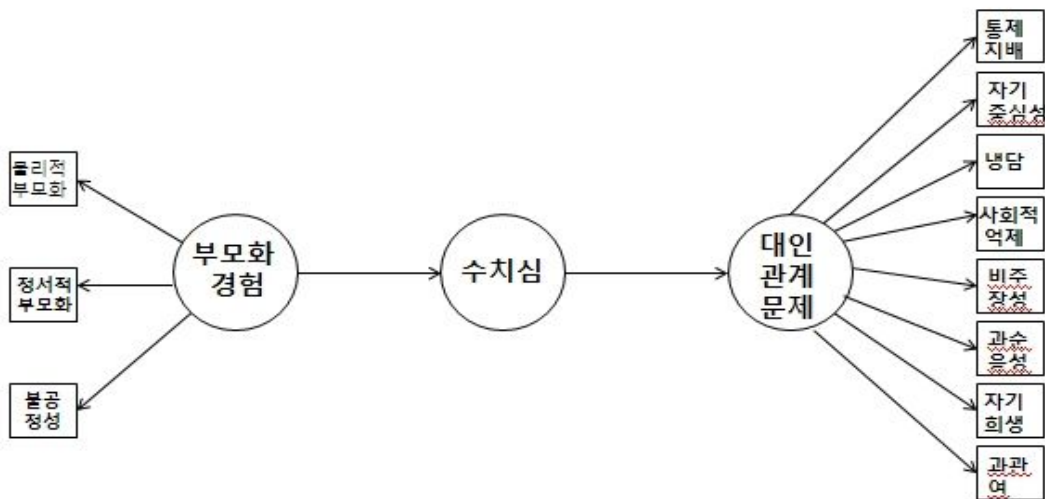


그림 2. 경쟁 모형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95부가 수거 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72부를 제외한 32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322명 중 남학생은 158명(49.1%), 여학생은 164명(50.9%)을 차지하였으며,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22)	%
성별	남	158	49.1
	여	164	50.9
학년	중1	179	55.6
	중2	114	35.4
	중3	29	9.0

2. 측정도구

1) 부모화 척도

부모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Q-Y(Parentification Questionnaire-Youth; Godsall & Jurkovic, 1995)를 토대로, Jurkovic, Kuperninc과 Casey(2000) 등이 개발한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 Youth)를 이정숙, 김은경(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FRS-Y는 PQ-Y(Parentification Questionnaire-Youth; Godsall & Jurkovic, 1995)를 토대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PQ-Y가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공정성 등의 항목이 섞여 있는 일차원적인 척도인데 반해서, FRS-Y는 청소년을 위한 3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도구적 돌봄(instrumental Caregiving)과 정서적 돌봄(emotional Caregiving)과 공정성(fairness)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정숙 등(2007)의 연구에서 공정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부모화의 맥락에 맞추어 불공정성으로 역코딩하여 점수화하였다.

하위척도는 도구적 돌봄 12문항(예: 나는 종종 내 형제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정서적 돌봄 9문항(예: 가족들은 종종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불공정성 13문항(예: 우리 집에서 나는 내 몫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의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을 많이 가진 것임을 의미한다.

Jurkovic, Kuperminc, Sarac과 Weisshaar(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본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1~.85였고, 이정숙, 김은경(2007)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부모화는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서적 돌봄이 .65, 불공정성이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물리적 부모화가 .62, 정서적 부모화가 .61, 불공정성이 .61로 나타났다.

표 2. 부모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번호	Cronbach α
물리적 부모화	1,4,9,12,15,18,21,22,26,27,32,33	.62
정서적 부모화	2,5,10,14,16,19,20,28,30	.61
불공정성	3,6,7,8,11,13,17*,23,24,25,29,31,34*	.61

* 역채점 문항

2) 수치심 척도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척도인 PFD를 수정, 보완한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는 심종온(1999)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이다. 신주연(2003)은 이것을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죄책감 경향성 문항 중 심종온(1999)의 요인분석 결과 수치심 경향성으로 묶인 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련된 정동적인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한 것으로, ‘당황스럽게 느낀다’,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등이 포함된다.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자의식’ 등 용어는 따로 쉬운 말로 풀이한 내용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변인이 2개 이상이어야 안정적이므로, 수치심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인 X1(수치심 2,4,5,6,7,8,9,10번), X2(수치심 1,3,11번)로 나뉘었다.

3) 대인관계 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Baer, Horowitz, Rosenberg, Ureno 그리고 Villasenor(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IP)를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하고,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단축형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척도 구성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통제지배,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지나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 형식은 1점에서 5점까지의 자기보고형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며, 총 점수는 최소 40점에서 최대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1-.89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8-.79이었다(권진희, 2006).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는 표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0~.87이었다.

표3.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통제지배	19,21,27,30,33	.71
자기중심성	6,7,10,13,22	.75
냉담	2,8,9,15,18	.85
사회적 억제	4,12,17,31,36	.82
비주장성	1,3,5,11,16	.87
과순응성	14,23,34,37,39	.78
자기희생	20,24,25,32,40	.71
과관여	26,28,29,35,38	.73

3. 통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6.0와 AMOS 16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
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사이에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검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공변량 구조모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된다. 적합도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
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는 적합도인가를 고려하여, 일반부합도
GFI(Goodness of Fit Index)와 더불어,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n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하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본다(홍세희, 2005).

V. 연구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부모화경험(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수치심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4 참고) 각 변인들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r = .637, p < .01$)을 보였고, 부모화 경험 또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 = .311, p < .01$). 이는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화 경험(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수치심,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부모화 경험, 수치심, 대인관계문제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화 경험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부모화	불공정성	수치심	대인관계문제
부모화 경험	1					
물리적 부모화	.798**	1				
정서적 부모화	.802**	.466**	1			
불공정성	.851**	.480**	.565**	1		
수치심	.311**	.163**	.218**	.367**	1	
대인관계문제	.296**	.198**	.183**	.329**	.637**	1
평균	62.23	19.56	17.36	25.32	22.43	91.64
표준 편차	10.86	4.24	3.83	4.91	8.73	25.23

** $p < .01$

2.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각의 측정 변인이 얼마나 잠재 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3개의 잠재변인(부모화 경험, 수치심, 대인관계문제)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수는 총 13개였다.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변인이 2개 이상이어야 안정적이므로, 수치심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인 X1(수치심 2,4,5,6,7,8,9번), X2(수치심 1,3,11번)로 나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각 잠재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신뢰도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와 같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5에, 측정 모형의 요인 값은 표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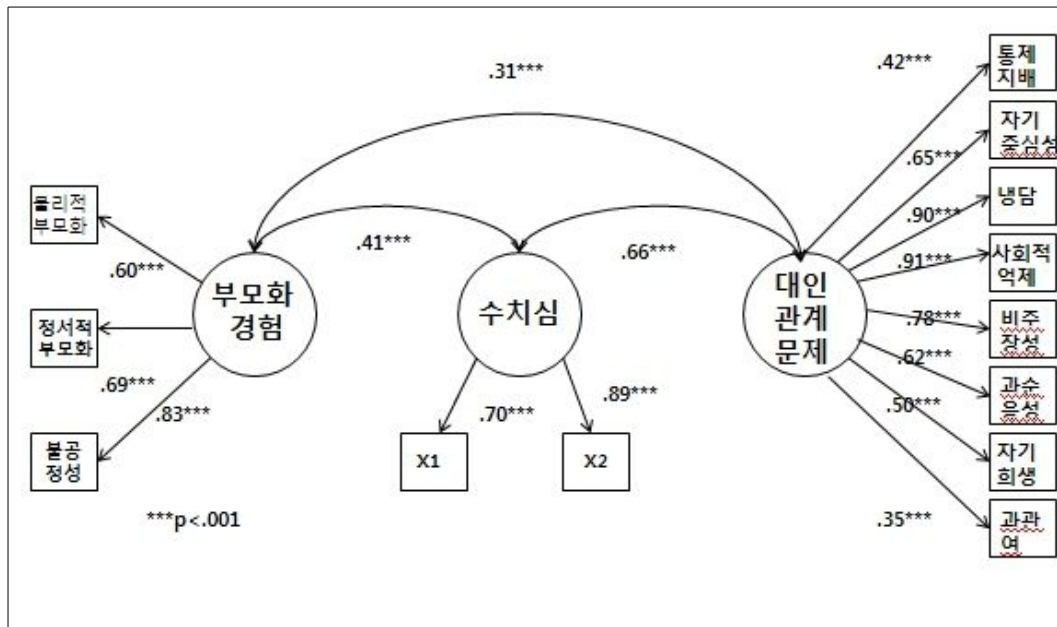


그림 3. 수치심을 매개로 한 측정모형 검증

표5. 측정모델 적합도

X ²	Df	AGFI	CFI	NFI	TLI	RMSEA
238.85	53	.82	.91	.89	.87	.10

표6. 측정 모델 요인 부하량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계수
부모화경험				
물리적 부모화	1			.601
정서적 부모화	.972	.110	8.865	.690
불공정성	1.494	.170	8.796	.828
수치심				
X1	.305	.029	10.490	.698
X2	1			.893
대인관계문제				
통제지배	1			.421
자기중심성	1.543	.191	8.060	.651
냉담	2.592	.336	7.719	.898
사회적억제	2.549	.329	7.746	.914
비주장성	2.459	.351	6.995	.784
과순응성	1.681	.245	6.850	.621
자기희생	1.275	.205	6.228	.504
과관여	.871	.120	7.239	.350

2) 구조모형의 검증

구조 방정식 모형은 3개의 잠재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구성 개념은 부모화 경험, 수치심, 대인관계문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 할 때 하나의 모델만을 추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실제로 연구모형에 비해 대안모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방정식 모델 관련 이론과 사전 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델을 다른 이론적 명

제, 기타 문헌에서의 반박 주장 및 간명도의 원리에 따라 여타 경쟁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경쟁 모델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김계수,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변인들의 관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2개의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X^2 검증을 할 수 있지만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홍세희(2000)가 제안한 적합도 지수인 GFI와 더불어, AGFI, CFI, N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GFI, AGFI, CFI, N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5와 .08사이의 값은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또한 nested관계에 있는 모형끼리의 유의도 수준 $\alpha=.05$ 수준에서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차이가 3.84이상의 X^2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이 때 두 모형간의 X^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형의 합치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모형간 합치도 차이가 없을 때에는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박광배, 2000, 재인용), 또한 각 변인들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가지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영향을 주기도 하고,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경쟁모형은 부모화경험이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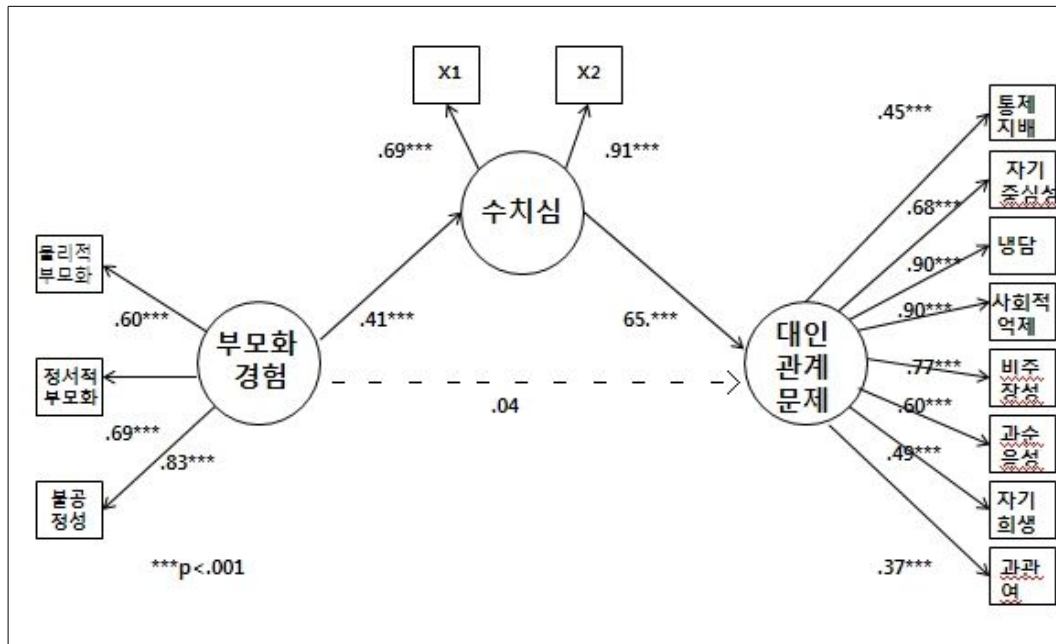


그림 4. 수치심의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연구 모형(그림 4 참고)은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나타낸다.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부모화 경험에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와 수치심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화 경험이 수치심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2) 수치심의 매개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비교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상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른 가능한 모형을 세우고 비교 검증하였다. X^2 차이의 유의도와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에 수치심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로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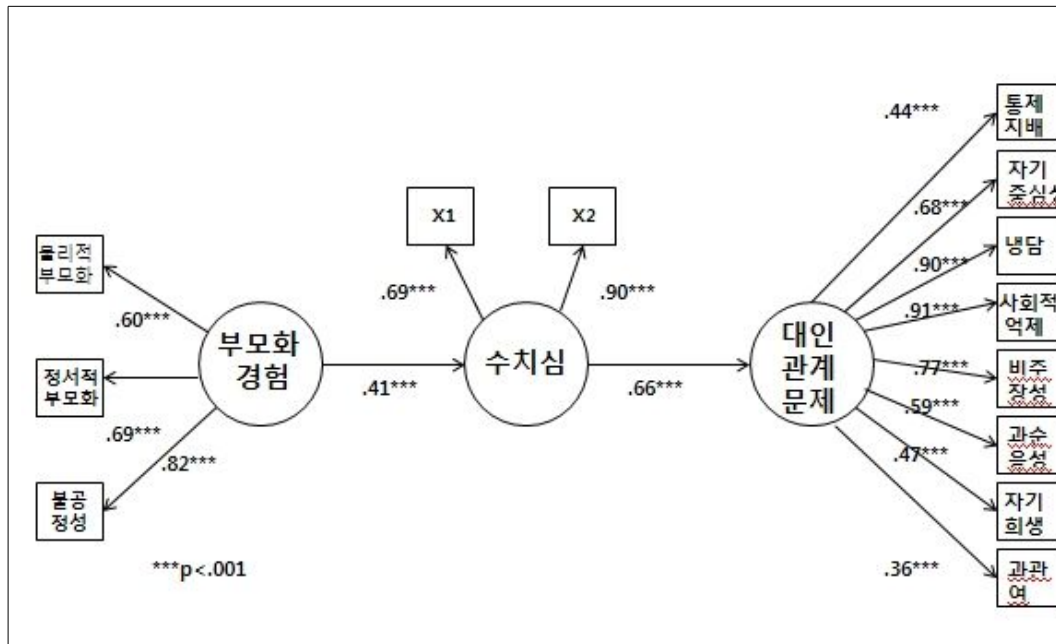


그림 5. 수치심의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

경쟁모형 (그림 5 참고)은 부모화 경험이 수치심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 모형이다. 부모화 경험은 수치심에 $\beta=.41$, $p<.001$ 로, 수치심은 대인관계 문제에 $\beta=.66$, $p<.001$ 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모화 경험이 많을 수록 수치심이 높아지고, 수치심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짐을 나타낸다.

우선,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CFI, NFI는 .90이상, RMSEA도 수용 준거인 .05~1.0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형으로 적합도 지수상의 차이가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았다. 이에 서로 nested 관계에 있는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X^2 값 비교를 통해 직접적인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값은 47.37(df=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경우 그림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에 이르는 경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04$, $p=.532$).

위의 적합도 지수에 의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표7. 수치심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과의 비교

	X ²	Df	AGFI	CFI	NFI	TLI	RMSEA
연구모형	235.87	53	.83	.90	.92	.88	.10
경쟁모형	188.5	52	.86	.94	.92	.91	.09

즉 경쟁모형 내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게 되면, 부모화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선택하였다. 경쟁모형의 각 변인간관계는 표8에 제시하였다.

표8. 경쟁모형에서 각 변인간의 관계

변인	B	β	SE	C.R	p
부모화 경험 → 수치심	.622	.41	.105	5.901	***
수치심 → 대인관계	.182	.66	.028	6.559	***

(3) 직접, 간접 효과

경쟁모형에서 경로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9에 제시하였다. 즉,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화 경험이 많고 그에 따른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9. 경쟁모형에서 경로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화 경험 → 수치심	.413	.413	-
수치심 → 대인관계	.657	.657	.272

VI. 논의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를 설명하고자 실시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관 연구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인인 부모화 경험, 대인관계문제, 수치심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화 경험과 수치심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화와 수치심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시사한다. 이는 부모화된 자녀의 수치심 경향에 관한 연구와 국내 연구인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Wells, Glickauf-Hughes, Jones, 2000; 신주연,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불공정성, 정서적 부모화, 물리적 부모화 순으로 수치심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가족들이 각자의 능력과 자원, 부담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관계와 신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족내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지 못하는 경우인 불공정성을 경험한 경우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서적 부모화 경험도 수치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부모화 경험 보다 내현적인 정서적 차원의 부모화 경험이 자녀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더운 해롭고 심각한 위협일거라는 이론적, 임상적 견해(Chase, N.D., Jurkovic et al., 1999에서 재인용; Davies, 2002)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성장기 시절에 가족내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부모에게 의지와 지지의 대상이 되어주기, 부모와 정

서적 필요를 채워주기, 공정하고 신뢰를 촉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족내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등의 경험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서적 부모화나 불공정성 경험의 경우, 대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로 가족안에 이런 일들은 성숙한 것으로 여겨져 칭찬이나 인정 등이 주어지기도 하고, 성장기의 자녀들은 자신의 생존에 위협적인 분리를 막기 위해 자신의 발달적 과업이나 내적, 외적 필요를 무시해가며 부모들을 돌보는 역할을 지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러한 돌봄의 역할에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타인에 기반한 정체감은 낮은 자기감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외부에 과도히 신경쓰므로 외부 상황 혹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과관여, 통제/지배 욕구 등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와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수치심이 부모화경험과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들을 구성하였고, 이 연구모형들은 선정된 매개변인이 어떤 경로로 개입되었을 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에 대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부모화 경험은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화 경험만이 설명하는 대인관계 문제의 변량은 약 4%였지만, 수치심이 추가 예측 변인으로 포함되면서 설명량이 약 66%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부모화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작은 부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만일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갖는다(Tangney et al,

1996)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화 경험이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주며,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있는 병리적 의존이 수치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Cleary, 1992; Wells & Jones, 2000; Whitfield., 1987; Wells et al., 1999)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화 경험을 갖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수치심을 다뤄주는 상담이나 인지치료가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부모화 경험을 많이 겪은 청소년들이라도 수치심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지지나 개입을 통해 총체적인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면, 이들이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후의 잠재적인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상담 및 치료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면접연구나 질적연구를 통해 자기보고 형식의 조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적 경향성의 역할인 수치심만을 다루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이외에 인지적 특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성장기에 겪은 한 개인의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부모화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부모화 경험과 청소년의 심리적, 대인관계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면, 부모화 경험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혹은 부모 교육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을 하위 차원으로 구분한 접근을 통해 자녀에게 초래되는 발달적 손실과 심리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경험보다는 정서적 경험, 불공정성 차원에서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둘째,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전에도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임을 밝힌 경험적 연구가 존재하긴 했으나,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정서적 경향성의 하나인 수치심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부모화 경험은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거쳐간다는 사실은,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부모화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지나 개입을 통해 총체적인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대인관계문제 등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상담 및 치료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들어 심리치료에서 정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중에서도 수치심과 정신 건강 간에 대한 재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보연(1999). 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재(2000). 대인불안과 사회적 자기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473-483.
- 김용태(2001).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김유숙(2002). 가족치료-이론과실제. 서울: 학지사.
- 김은영(2008).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 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 김현진(2002). 대학생의 우울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설영(1999). 대인관계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비(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종은(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해례(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부모화.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건희(2002). **아동의 대인관계도식과 자기개념이 역기능적 문제해결 양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은경(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39-356.
- 이주희(200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또래수용, 문제 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형득(1968). 인간관계의 개선과 치료.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장진아, 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 조은영, 정태연(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43-62.
- 조은영, 정태연(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조효진(2009).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미(1998).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한혜림(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277-285.
- Berman, W. H., & Sperling, M. B.(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 20, 427-440.
- Bernschie, R. M. (1980). The development of the self-system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31-245.
- Betchen, S. J. (1996). Parentified pursuers and childlike distrancers in

- martial therapy. *The Family Journal: Counsel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4(2), 100-108.
- Boszormenyi-Nagy, I.,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ry*. Basic Book. New York.
- Buss, A.H.I., & Buss, E.H. (1979). The development of embarra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103, 227-230.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 Cacioppo, J. T., Glass, C. R., & Merluzzi, T. V. (1979). Self-statements and self-evaluation: A cognitive response analysis of hetero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249-262.
- Chase, M. D. (1999). Parentification: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Chase, N. D., (Ed.), (pp.3-33). Burdened children. SAGE Publications Inc.
- Cleary, M. J. (1992). Shame and shame-based syndromes: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ors*. *Health Values*, 16(6), 47-54.
- Coale, H. W. (1989). Common dilemmas in relationships. *Journal of Strategic and Systemic Therapies*, 8(2/3), 10-15.
- Dewey, R. Humber, W. J. (1959). *The Development of Human Behaviors*, 202-204. New York: The Macmillan Co.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o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4), 291-314.
- Harder, D.H.,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729-745.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83-30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ames, W. (1983). *Psychology: The brief course*. New York: Henry Holt.
- Jurkovic, G.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J (1997).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L. L'Abate (Ed.),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237-255. New York : Guilford.
- Levin, S.(1971). The psychoanalysis of sha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2*, 355-362.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opez, F. G., Gover, M. R., Leskela, J., Sauer, E. M., Schirmer, L., & Matthews, K.A., Angulo, J. (1980). Measurement of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itiveness, impatience-anger,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 466-475.
- Newcomb, T.M., et al. (1975). *Social Psychology: The Study of Interaction*. 158.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Raimy, V.C.(1970). *The Self- Concept as a Factor in Counseling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154-164.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gers, C.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Tangney, J. P.(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1999-206.
- Tangney, J. P., Barlow, D. H., Wagner, P., Marschall, J. E., Borenstein, J. K.,Sanftner, J., Mohr, T., & Gramzow, R.(1996).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80-796.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Wells, M., Glickauf-Hughes, C., Jones, R. (2000). Codependency; A Grass-Roots Construct's Relationship to Shame-Proneness, Low Self-Esteem,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 63-71.
- Wells, M., & Jones. R. A. (1996). An emprical study of Parentifa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2), 145-152
- Wells, M., & Jones. R. A. (1998).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parentification, splitting, and dissociation: Preliminary finding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331-339.
- Wells, M., & Jones. R. A.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lar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Wyssman, J. (1997). Attachment styles, shame, guilt, and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orient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4, 187-199.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un, so -ye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322 students recruited from middle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 Youth),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and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SC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Data were analyzed by SPSS 16.0 and AMOS 16.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arentific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problems and shame.

Second, shame tot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ication,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부모화 척도

부록 2. 수치심 척도

부록 3. 대인관계문제 척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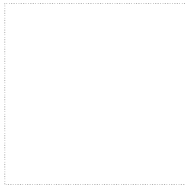
본 설문지는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고 가능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전 소 연
지도교수 이 정 윤

✎ 다음 질문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기입해주세요.

1.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① 남() ② 여()

2. 현재 몇 학년인지 표시해 주세요.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O 표를 해주세요. 개인의 경험들은 다 독특하기 때문에 옳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모든 진술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 히 그 령 지 않 다	드 물 게 그 령 다	중 중 그 령 다	매 우 그 령 다
1	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쇼핑(음식이나 옷 등)을 많이 한다.	1	2	3	4
2	때때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라고 느낀다.	1	2	3	4
3	우리 집에서 나는 내 몫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1	2	3	4
4	나는 종종 내 형제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1	2	3	4
5	가족들은 종종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1	2	3	4
6	부모님은 나를 돌봐주셨지만, 나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	1	2	3	4
7	나의 가족들은 내가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한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8	가족들에게 내 감정은 중요시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9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	1	2	3	4
10	나는 종종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11	가족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2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1	2	3	4
13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는지 가족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1	2	3	4
14	가족들은 나에게 항상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1	2	3	4
15	나는 종종 가족들의 빨래를 한다.	1	2	3	4

16	우리 식구들 중 누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어떻게든 도우려고 한다.	1	2	3	4
17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은 매우 잘 도와 주신다.	1	2	3	4
18	집에서 나는 자주 요리를 해야 한다.	1	2	3	4
19	부모님이 싸울 때, 내가 각자 자신의 편들어주기를 바란다.	1	2	3	4
20	내가 가족들을 돌봐주어야만 할 것 같다고 느낀다.	1	2	3	4
21	종종 부모님들은 나보고 형제를 돌봐주라고 하신다.	1	2	3	4
22	집안이나 밖에서 나는 많은 일을 한다.	1	2	3	4
23	때때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책임감이 있는 것 같다.	1	2	3	4
24	부모님은 집안일을 도우려는 나의 노력에 종종 비판적이시다.	1	2	3	4
25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다.	1	2	3	4
26	부모님은 종종 형제들의 문제를 나보고 도와주라고 요구하신다.	1	2	3	4
27	나는 집에서 온갖 허드레일을 한다.	1	2	3	4
28	종종 내가 부모님의 갈등 사이에 끼어있는 느낌이이다.	1	2	3	4
29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보기를 기대하신다.	1	2	3	4
30	부모님은 종종 나에게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신다.	1	2	3	4
31	나는 가족에게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한다.	1	2	3	4
32	부모님이 글을 쓰거나 말하는데 서투르셔서 내가 대신 해드리곤 한다.	1	2	3	4
33	부모님이 공적인 일처리를 잘 못하셔서 내가 도와드리는 일이 종종 있다.	1	2	3	4
34	부모님은 옷이나 음식, 학교 준비물 등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주신다.	1	2	3	4

다음은 평소 자신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느끼지 않는다	드물게 느낀다	종 종 느낀다	대 개 느낀다	거의 항상 느낀다
1	당황스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1	2	3	4	5
3	자의식을 느낀다. (자의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주목하는 성향)	1	2	3	4	5
4	창피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5	바보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6	유치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7	무력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8	부끄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9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10	타인이 나에 대해 정 떨어질 것 같다.	1	2	3	4	5
11	후회스럽다.	1	2	3	4	5

다음 문항들은 '나는 대인관계에서 이런 점들이 어렵다'고 느낀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하십시오.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잘 모르겠다	대 체 로 그 령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줄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줄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줄기가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다음 문항들은 '내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이런 점들이 있다'고 느낀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하십시오.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잘 모르겠 다	대 체 로 그 령 다	매우 그렇다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	2	3	4	5
35	늘 주목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	2	3	4	5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1	2	3	4	5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학문에 대한 목마름으로 다시금 늦각이 학생으로 대학원에 입학하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학부 교양 수업에 처음 접하게 되고, ‘아, 이런 학문도 다 있구나!’ 하며, 깊이 매료되었던 20대 초반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대학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소망이었던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언젠가 제대로 배워보자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 방황하던 대학교 3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비전도 (기도하며) 구해야한다!”는 수련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난 후 우연히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의 홍보영상물을 통해 ‘가정학대를 당한 아동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심리상담가의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직업이 있었구나. 저 직업이라면, 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싶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간절 한 마음이 있었기에 대학원 2년간의 시간은 제게 있어 큰 선물과도 같은 시간 들이었습니다.

2년여 시간의 수업 가운데, 상담이 특화된 본교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상담실습 등을 통해 인간미 넘치고, 따뜻한 많은 선, 후배분들을 만나 함께 힘이 즐거웠고, 나의 장점 뿐만 아니라, 연약한 모습까지도 깨닫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칫 적응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늦각이 학생이었지만, 1년간 대학원 조교생활은, 늘 살뜰히 마음 써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많은 좋은 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보석과도 같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밤 새며 과제하던 순간 순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짧지만 소중한 지역센터 자원봉사, 청소년상담원에서의 보조연구원을 통해 알게 된 좋은 인연들도 떠오릅니다.

특별히, 언제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족한 딸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 함께 있음이 힘이 되고 즐거운 아티스트 동생 소정이, 늘 따스이 격려해주시고 카리스마 넘치는 통찰력으로 지도해 주시느라 애써주신 이정운 교수님, 인생의 희노애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백혜수 선생님, 이제는 영적 아버지로서 적재적소에 기도와 나눔으로 힘을 얻게 해 주시는 큰 외삼촌, 함께 울고 웃으며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동기들과 선, 후배님들, 함께 하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재충전이 되게 하는 나의 벗, 친구들, 항상 나의 길을 응원해주고, 만나면 따뜻한 전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하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누고 사랑할 때, 내려 놓을 때,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마음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걸음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